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페스 선교소식

최근에 알게 된 복음성가곡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로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 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노래하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인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누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믿음의 선물을 멕시코 선교를 위하여 기도와 격려로 선교비 후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하며 2026 년 1 분기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1. 울창한나무교회 (Arbol Frondoso)

여느 해와 같이 2026 년 1 월초부터 3 주간 매일 밤 교인 30 여명이 모여 기도모임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연초에 기도는 새해에 일어날 선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설립 18 년차된 울창한나무교회 사역 봉사자 세미나를 2 월 9 일 템파한인장로교회의 김정곤 목사님 내외분이 방문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갖았습니다. 참석한 약 60 명의 봉사자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교회 개척팀, 가정교회 모임 소그룹 지도자들과 주일학교와 어린이 토요일 성경클럽 교사들, 찬양팀 사역자들, 봉사위원과 노방전도팀 등이 너무 귀합니다.



2. 청소년부 3 월 수련회 - 노아선교센터

저희 선교사역의 감사한 부분이 청소년 사역입니다. 전담 지도자가 없는 청소년부가 자체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다 안정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3 월 6-8 일 동안 진행된 교회 자체 청소년 수련회에도 귀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작년에 50 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번에는 70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초청기도에 임한 아이들이 40 여명에 이르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 지속되어

젊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멋진 일들이 생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올 여름에도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지역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8월 중순에 노아선교센터에서 열 계획입니다. 작년에 작은 교회들 아이들 170여명이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올해에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3. 어린이 사역

2월 9일에는 두 곳 마을에서 어린이 축제 (Festiniño)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 곳은 교회에서 가까운 곳으로 villas de ríos 마을에 170여명에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서 차량으로 35분 떨어진 Jesus Teran 마을에서는 150명의 아이들에게 선물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이 토요성경클럽을 열어 한 곳은 매주 토요일, 다른 한 곳은 매주 목요일에 아이들에게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마을에 25-30명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마을마다 카톨릭 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리교사와 성당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카톨릭이 94% 달하는 이 지역에서는 저희 어린이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방해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교사들의 헌신이 너무 귀합니다. 아이들 마음 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 나리라 믿습니다.



4. 고아원(보육원) 개설을 위한 준비

저희는 18년 전 아구아스칼리엔테스에 정착한 이후, 지역교회 개척과 선교센터 건립, 그리고 고아원 사역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품고 사역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교회와 선교센터 사역은 잘 세워졌고, 어린이 성경클럽 사역도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지막 비전인 고아원(Casa Hogar)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2024년 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였고, 2025년 10월에는 비영리 법인 등록도 마쳤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 분야의 멕시코 성도 13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 고아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1월에 기존하고 있는 고아원(Dulce Refugio) 인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도와 논의를 거쳐 고아원사역을 인수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인수에 관련된 법적 검토도 마쳤습니다. 이 고아원은 현재 29명이 있고 48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수를 위해 약 500만 페소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약 30%가 마련되었고, 나머지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 1월 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수 및 운영 재정과 봉사자 연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사로 파송된지 30년이 되는 동안 변함없이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그분의 선한 사역들을 그분의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가실 줄 압니다.

멕시코 정명남, 권정희(갈렙, 조셉) 선교사 2026년 3월 30일